



○22일 무연산 천태종 관문사 4층 옥불보전에서 열린 천태다도연구보존회 창립식에서 법패음악에 맞춰 헌다의식을 하고 있는 장면.

“茶禪一如” 운치 느껴보세요

천태다도연구보존회 창립기념 헌다의식

다선일어(茶禪一如)의 운치를 느껴보세요. 22일 무연산 천태종 관문사 1층 로비에는 한복을 곱게 차려 입은 신도들이 정좌하고 앉아 정성껏 차를 우려내고 있었다. 기품과 절도 있는 모습에 약간의 긴장감마저 흐른다. 바로 천태종이 차(茶)를 체계적으로 연구 정리하고 보급하기 위해 만든 '천태다도연구보존회' 창립기념 들차회 현장이다. 들차회란 다인(茶人)들이 준비해온 차도구를 감상하며 잘 우려낸 차(茶)와 다식(茶食)을 지인들과 함께 음미하는 자리. 행사장을 찾은 장민자 보살(66·강남구 개포동)은 "차를 많이 마셔왔지만 이렇게 다례법에 따라 공양을 하기는 처음"이라며 "격식을 갖춰 차를 마시니 마치 참선할 때와 같은 고요함이 생겨난다"고 좋아했다.

이어 4층 옥불보전에서 '차와 국악의 만남'을 주제로 진행된 '다도발표회'에서는 법패의식에 맞춰 팔자와 일차의 헌다의식이 거행됐다. 조선시대 복식을 갖춘 6명의 신도들이 헌다례를 한데



○한국창작음악연구회의 '다악'은 차의 정취를 우리 가락으로 표현한다.

음악으로 만나는 차 11월1~2일 다악페스티벌

한국창작음악연구회는 11월 1일 오후 7시와 2일 오후 5시 서초동 국립국악원 무명당에서 다악 페스티벌 2002-차로 이어지는 겨례, 송결을 주제로 음악회를 연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창작음악연구회 회원들이 민족색채에 느끼는 차의 정취를 우리 가락에 맞춰 창작한 곡들을 들려준다. 이종구 교수

이어 부산 삼광사, 울산 정광사, 안산 월광사, 경주 청광사, 진주 월경사 등 5개 지방 말사 다도연구회팀들이 참가해 생활다례 시연을 펼쳤다. 이혜자 관문사 다도 지도교수(성대 생활과학대

“의천스님 차사랑정신 계승” 초대회장 춘광스님

“천태종의 시조인 대각국사 의천 스님은 수많은 차시(茶時)를 통해 번뇌를 끊는 수행자의 진실한 벗으로 차(茶)를 표현할 만큼 차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셨습니다. 이에 의천 스님의 차 사랑 정신과 고려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던 천태다도의 계승 발전을 위해 연구회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천태다도연구보존회 초대회장으로 선출된 춘광 스

학원은 "다례는 옛부터 국중종래나 외국사신맞이 등 국가적인 의례에서 종교의식, 민간의 손님맞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에서 행해지던 주요 예법이었다"며 "특히 불교에서는 스님들이 심신을 맑게 하고 정신수행을 하는 방편으로 사용돼 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천태다도연구보존회'는 창립법회를 열고 춘광 스님(관문사 주지)을 초대 회장으로 추대했다. 김주일 기자 jkim1@buddhapia.com



님의 창립 취지다. 89년 부산 삼광사 주지시절 다도연구회를 창립하기도 했던 춘광 스님은 천태 조사들의 다선일어 수행을 재조명하고 잊혀진 천태다도의 역사를 복원해 내겠다는 야심찬 각오를 밝혔다. 춘광 스님은 11월 16일 관문사에서 한국다인연합회, 한국차학회와 공동 주최로 한국 차 역사를 조명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자연의 4계절 유희전 영인스님 31~11월4일

염불하는 스님으로 잘 알려진 영인 스님(영천 거동사 주지)이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인사동 갤러리 라메르 3층 전시실에서 전시회를 갖는다. '일출', '겨울풍경', '연', '산천', '계곡' 등 사계절의 자연을 그린 유희 그림 50여점이 선보인다. 02-730-5454

‘한국불교미술’ 주제 세미나 불교문화산업기획단 26일 가나아트센터서

(사)불교문화산업기획단은 26일 서울 평창동 가나아트센터에서 한국 근현대미술에 나타난 불교사상을 조명하는 '아름다움과 깨달음' 전의 일환으로 한국불교미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장충식 동국대 박물관장, 윤범모 경원대 교수, 최태만 서울산업대 교수의 발표 내용을 요약·정리한다.

한국불교미술의 특성 (장충식 동국대 박물관장)

불교미술은 목적성을 지닌 장엄의 미술이다. 장엄이란 맑은 잘못 들으면 일반 순수미술과 큰 차이가 있는 듯 하지만 미술은 본질적으로 장엄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다만 문제는 목적성이다. 이런 목적성의 문제는 종교미술이란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납득된다. 다시 말하면 불교미술은 발원의 미술이요, 요청의 미술이란 특색을 지닌다. 또 불교미술은 불교의 근본 사상이자 자비와 지혜에 바탕을 두고 이룩된 조형활동이다. 불세계의 중중무진한 세계를 화엄에서는 화엄철해라 하고, 이는 세계일화에 비유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세계에 대한 축소된 표현이 가람배치라 해도 좋다. 따라서 가람배치란 시대에 따른 불교미술의 종합적 양상이라 할 수 있다.

한국불교미술은 분야별로 건축, 조각, 회화, 공예 등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지만 그 중심은 조각과 건축에 있다. 그러므로 가람 역시 조각과 건축을 중심으로 하는 불상과 불탑의 봉안처가 되고 있으며, 이들은 예배 대상이자 불교미술의 중심을 이룬다. 다시 말하면 가람배치에서 오는 주변 산수와의 조화, 나아가 사람과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창안된 이렇다. 이 자연사상인 자비와 지혜에 바탕을 두고 이룩된 조형활동이다. 불세계의 중중무진한 세계를 화엄에서는 화엄철해라 하고, 이는 세계일화에 비유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세계에 대한 축소된 표현이 가람배치라 해도 좋다. 따라서 가람배치란 시대에 따른 불교미술의 종합적 양상이라 할 수 있다.

자비와 지혜 바탕으로 한 조형예술

20세기의 불교미술, 그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것이 이번 전시회의 주제이자 의의다. 한국에서 불교미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사찰의 불사(佛事)이다. 하지만 20세기는 사찰의 불사현장과 미술계가 상호 무관한 시기였다. 이런 시대의 흐름에도 불교계의 관심과 무관하게 불교사상과 소재로 작업을 수행한 미술가가 있다.

한국근현대미술과 불교 (윤범모 경원대교수)

색채가 선명하다는 점에서 전통 채색과 차별성을 띠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전시는 불교사상을 기저로 제작한 현대미술품을 한자리에 모아 대강의 윤곽이나 설정하려는 데 일차적인 의의가 있다. 더불어 근대미술의 경우, 사찰 봉안의 미술가 작품을 발굴해 미술계에 공개한다는 데도 역점을 두었다. 이번 전시회에 선보 여진 김복진, 정종여, 오지호 장육진 등이 바로 그들이다. 이중 근대 최초의 조소예술가인 김복진의 '정혜사 관음보살좌상'은 수려한 자태와 온화한 분위기, 안정감 있는 비례 등에서 뛰어난 수작으로 꼽힌다. 대표적인 채색화가였던 정종여의 '진주 의곡사 석가여래좌상 배설' 또한 유려한 필치와 단순하면서도 경쾌한 구도 그리고

색채가 선명하다는 점에서 전통 채색과 차별성을 띠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전시는 불교사상을 기저로 제작한 현대미술품을 한자리에 모아 대강의 윤곽이나 설정하려는 데 일차적인 의의가 있다. 더불어 근대미술의 경우, 사찰 봉안의 미술가 작품을 발굴해 미술계에 공개한다는 데도 역점을 두었다. 이번 전시회에 선보 여진 김복진, 정종여, 오지호 장육진 등이 바로 그들이다. 이중 근대 최초의 조소예술가인 김복진의 '정혜사 관음보살좌상'은 수려한 자태와 온화한 분위기, 안정감 있는 비례 등에서 뛰어난 수작으로 꼽힌다. 대표적인 채색화가였던 정종여의 '진주 의곡사 석가여래좌상 배설' 또한 유려한 필치와 단순하면서도 경쾌한 구도 그리고

불교미술 현대화 작업 시급한 때

이번 불교미술전을 소개하는 행운도 있었다. 이번 불교미술전을 계기로 보다 본격적인 불교미술의 현대화 작업에 박차가 가해졌으면 한다. 아울러 불교미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불교계에서도 현대미술에 대한 각별한 이해와 관심이 요구된다는 것을 당부하고 싶다.

한국불교미술의 과제 (최태만 서울산업대교수)

우리 나라 국보와 보물 중에서 거의 대부분을 불교 문화재가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에 제작된 불교미술 중에서 이러한 전통을 계승할 만한 가치와 중요성을 지닌 작품이 과연 있는가 하는 질문에 아무도 자신있게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는 것이 현대불교미술이 처한 현실이다. 심지어 현대불교미술의 부재물 통탄해야 할 지경이다.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이들의 작품을 통해 기술적 숙련성이 탁월한 공예적 회화나 조각은 발견할 수 있을지언정 현대불교미술이라고 내세울 만한 그 어떤 근거도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에 오히려 당혹감을 느낄 정도다. 지금은 불교가 정신세계는 물론 문화의 흐름을 이끌어 갔던 시대와 다른 시대이므로 훗날 우리의 자손들

이 20세기나 21세기가 남겨놓은 물건 중에서 국보로 지정할 때 현대의 불교미술을 대상으로 할 확률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제작된 불교미술 중에서도 꼭 국보급의 훌륭한 작품이 나와야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시급한 것은 '보물'을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적 집착이 아니라 지리멸렬해 져거나 사업으로 '전략'한 불교미술이 종교라는 유력한 '시장'을 겨냥한 '상품'으로서가 아니라 '예술작품'으로서 자기위상을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의 불교미술이 과거의 전통을 이어받아 다시 살아나기 위해 전통의 계승 못지않게 불교의 교리나 사상에 부응하는 미술로 거듭나기 위한 심가한 검토와 고민을 필요로 해야 할 것이다.

상품 아닌 예술품으로 위상정립해야

이 20세기나 21세기가 남겨놓은 물건 중에서 국보로 지정할 때 현대의 불교미술을 대상으로 할 확률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제작된 불교미술 중에서도 꼭 국보급의 훌륭한 작품이 나와야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시급한 것은 '보물'을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적 집착이 아니라 지리멸렬해 져거나 사업으로 '전략'한 불교미술이 종교라는 유력한 '시장'을 겨냥한 '상품'으로서가 아니라 '예술작품'으로서 자기위상을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의 불교미술이 과거의 전통을 이어받아 다시 살아나기 위해 전통의 계승 못지않게 불교의 교리나 사상에 부응하는 미술로 거듭나기 위한 심가한 검토와 고민을 필요로 해야 할 것이다.

한글대장경이 불국토를 장엄합니다

사찰에 봉안하면 聖寶
가정에 봉안하면 家寶
읽고 마음 밝히면 法寶
한글 대장경은 불자의 귀의처입니다.



대장경을 읽읍시다.
대장경을 봉안합시다.

동국역경원이 37년만에 318권으로 완성한 한글대장경은 우리를 깨달음의 길로 안내하는 부처님의 자상한 가르침, 법보(法寶)입니다. 지금, 바로 지금 사찰과 가정에 한글 대장경을 봉안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마음 밝히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지극정성 귀의합시다.



「한글대장경」 및 봉안 전용 장경각(주문 제작 보급)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 02-737-8881, 02-722-4162 팩스 : 02-737-0697

장경각의 특징

- 신앙성 : 한글대장경의 한 가운데 석가모니부처님 상과 탕화가 화려한 담집과 불단으로 장엄되어 있어 법신불에 귀의하는 신앙적 의미를 갖추었다. 신실 포교당의 경우 장경각으로 불단을 구성 할 수 있다.
- 장엄미 : 세밀한 부분까지 정교한 조각으로 장엄미를 극대화 했다. 연화문 당초문 사자상 쌍용상 등이 어우러져 법신불을 찬양 호위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 실용성 : 7개의 서랍과 이동식 공양을 받침대, 연화문 용문 귀면문의 손잡이등이 실용성과 아름다움을 발휘한다.

부다피아카드로 봉인불사를..

연대불교신문사와 외원은행의 제휴카드인 부다피아 외원비자카드 신청 실적으로 사찰에 한글대장경을 봉안할 수 있습니다. 사찰신도가 부다피아외원비자카드에 500명이 가입하면 한글대장경1집(4책7만원)을 봉안할 수 있습니다.

※ 장경각은 사찰봉안용과 가정 소장용 두가지가 있습니다.